Issue Comment

2025. 7. 28

롯데하이마트 071840

2Q25 Review

음식료/유통
Analyst **김정욱**
02. 6454-4874
6414@meritz.co.kr

RA **황홍진**
02. 6454-4874
hongjin.hwang@meritz.co.kr

- 2Q25 실적은 매출액 5,942억원으로 전년비 +0.8% 증가, 영업이익 105억원으로 전년비 77억원 증가하며 컨센서스 71억원 대비 +48% 상회. 부과세 환급 등 일회성 요인 제외한 영업이익은 1분기 -81억원(+79억원), 2분기 46억원(+44억원) 기록. 25년 가이던스인 실질 영업이익 100억원 달성 가능할 전망

- 11개 브랜드의 다양한 하이마트 구독 개시, Apple 365일 수리 접수 센터 89점 개통 등 빈도 유발 고객 접점 확대 전략을 통한 가전시장 역신장 극복. 총매출 기준 1H24 -17.4%, 2H24 -4.8%, 1H25 +3.0%(안심 Care 서비스 +78%, PB, PLUX +12%, 온라인 자사몰 +28%)

- 주요 추진 전략은 1) 안심 Care 서비스 진화 – 가전 클리닝 등 고객 접점이 높은 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고령화에 적극 대응한 방문 컨설팅 런칭(6월), 2) 경험형 매장 리뉴얼 – 빌트인 Planner 솔루션(7월), MOTOPIA 오픈(4월) 등, 3) 일상가전 PB, PLUX – '25년 4월 PLUX 런칭 이후 '25년 상반기 PB 매출 신장율 +12%. 30개 신규 상품 중 카테고리 1위 15개, Top3 22개 기록

- '25년 하반기 3대 추진 전략 지속 고도화. 1) 안심 Care 서비스 진화 – 하이마트 구독(5월), Apple 전국 수리 접수(7월), 2) 경험형 매장 리뉴얼 – 빌트인 플래너 솔루션 도입(7월 150점 → '25년말 전체 점포), 모바일 특화 매장 MOTOPIA 확대(5월 2점 → '25년말 8점), 하반기 20여점 리뉴얼 추진, 3) 일상가전 PB, PLUX – 하반기, 총 34개 신규 상품 출시

2Q25 Conference Call Q&A

Q1 **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실행 이후 수요 흐름과, 가이던스 상향 조정 가능성은?**

A1 예산 2700억, 인당 30만원 수준.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사례와 유사하나 당시에는 에어컨 3등급 가전도 환급했으나, 이번엔 1등급에만 적용됨.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나, 현재까지 환급 대상 품목 7월 매출은 5% 증가. 6월 동일 상품의 역신장과 비교 시 유의미한 수준. 가이던스 관련해서는 하반기 실적 흐름을 보고 고민해볼 것

Q2 **구독상품 매출 전망?**

A2 구독 런칭 2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 돌파, 매출 규모 보다는 대형가전 중심 차별화 포인트에 초점을 맞춤. IT/가전 등 글로벌 브랜드 중심 확대 전략이 긍정적, 오프라인 중심으로 구독이 활성화되고 있으며, 매출 비중은 8~9% 수준. 연말까지 천억원 이상 달성 계획. 일반 상품 대비 이익률 높은 편이라서, 수익성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판단

Q3 **높은 판관비 구조가 아쉬운데, 앞으로의 방향성은?**

A3 매출이익률 개선 지속에도 판관비도 증가된 부분이 있음. 작년 7월 이후 삼성·LG 판촉 사원 90%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가 영향. PB 상품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. 하반기 판관비 감소 전망

Q4 **주식발행초과금 3천억 감소, 영업권 2,647억 감소 이유는?**

A5 주식발행초과금 3천억은 이익잉여금으로, 배당가능재원 확보. 영업권 손상은 작년 하반기 연말 2,647억은 손상리스 때문

Q5 **향후 주주환원정책 계획 공유 부탁**

A5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 배당재원을 늘릴 것. 배당성향 30% 이상 달성 목표

Q6 **부과세 환급이 잦은데, 앞으로도 그러할지?**

A6 미래성 요인,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환급. 앞으로는 대규모 사항은 없을 것

Q7 **영업권 손상 관련 5,700억 남은 상태인데, 올해 연말은 얼마 정도로 예상되는지**

A7 영업권 손상 관련한 예측은 어려우나, 현재 실적 개선 중으로, 하반기 판단 가능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